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하나 밝히면 극락



1965년 동산스님 입적시 범어사에서(사진 뒷줄 왼쪽부터 일타, 성철, 청담, 도우, 천제, 혜성스님)

“불자라면 늘 오계따르고 부끄러움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믿음 자랑스레 여겨야”

지런히 정업을 닦지 않는다면 한 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거요. 지은바 업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때 내가 금강산 여러사찰을 돌아 보고 내려오니 사찰산 대승사에서 청담스님을 비롯한 여러 소장스님들이 <무량수경>에서 정토발원을 했습니다. 왜 정토발원을 합니까 하고 여쭙더니 우리가 여기서 여름을 지내면서 모든 스님이 정토발원을 했다 하셔서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나도 따라서 정토발원을 했지요. 그래서 이후 선과 정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 많은 선사들이 선정쌍수하신 것을 알게되고, 육조스님도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만세(萬世)의 티끌 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祖師)가 되는 정당한 일이며, 삼계(三界)의 천상 인간의 눈이요, 마음을 밝히고 제 성품을 보는 지혜등불이다. 지옥을 파(破)하는 맹장(猛將)이요, 사탄 무리를 베는 보검이며, 오천대장경의 골수요, 팔만다라니의 중요한 문이며, 암흑을 여는 등불이

타이라도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무아미타불 공덕이라는 한가지는 알고 믿어야 나중에 이 육신을 버리고 갈 때 자신의 나이갈 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래 인내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젊으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쓸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열주, 합장주를 품어 지니고, 오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믿는 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늘 불법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굶다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여객기가 뜰에서 추락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여객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뒤에서 누가 와서 부딪치면 죽는거지 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든지 내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안하고 믿지않는 사람은 부처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수행하세요. ‘내일 하지 뭐’하고 미룬다면 죽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늙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 못 갈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세계에 가려면 믿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수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령초와 같아서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가고, 바람이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가고, 그렇게 중심없이 흔들리다가 보면 사람신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계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해탈 자재해서 조금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처의 삶입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분을 생각하고 힘껏 노력하여 정토왕생을 구경회향처로 발원하세요. 늘 일과를 정하여 집이 있을때나 다른곳에 가더라도 부처님께 염불참선수행을 한다면 정토는 멀지 않습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23 와 경전



법구경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

내 고향은 남해다. 산골이면서 항상 바다와 접하면서 살았다. 섬지방이 항상 그러하듯이 불교의 뿌리가 깊었는데 어렸을 적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할 때면 출가하겠다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아마도 섬이라는 전통적 보수성과 주변에 남해 금강산의 관세음보살성지인 보리암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거기에서 과거 고려때 대장경의 분사도 같이 설치 될 정도로 불연이 깊었던 숙연도 있었으리라 본다.

소년시절 나를 불교와 연결시켜준 중요한 분이 한분 계셨다. 그분도 역시 보리암에서 승려생활을 하다가 세속에 내려와 사시던 분이었는데 나의 속가 큰 형님과 비슷한 연배였다. 몸이 약했던 나는 자주 앓아 누워서 또래 아이들 보다 깊은 생각에 잠길때가 많았다. 또 보이는 책이란 책은 몇번이나 읽어 서 다 외울 정도였다. 그런 욕구가 왕

2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로 단독의 시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둘 또는 여러편의 시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의 형태로 구상한 이 경은 방대한 불교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불교의 도덕관과 사회관 등의 교화내용을 담고 있다. 순수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번뜩이는 지혜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 경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누구나 좋아하며, 불자라면 <법구경>의 경구 한두개쯤은 외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

<법구경>은 우선 읽기가 쉬웠다. 형식이 4구절로된 시가 많았고 길지가 않아 몇구절 읽고 음미하기도 좋았다. 그래서 그때는 외우거나 공책에 구절을 적어놓고 공부시간에도 가끔 들여다 보곤했다. 한 번은 반 전체에서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그만 선생님

시구 423편...가장 오래된 진리의 말씀 학창시절부터 읽은 삶의 길 안내서

성할 때 나에게 빛이 되어 주었던 분이 바로 그 거사님이었다. 나에게 부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어떤분인지 무엇을 하면서 사셨는지 왜 성인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당신이 보시다시피 겹표지가 다 닳아 떨어져 너털거리는 경전을 몇권 주셨다. 한 내용이 나의 코골을 때렸고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 깊이 충격을 주었다. 그때 받은 경전 가운데 한권이 바로 <법구경>이었다. 대부분의 경전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번 읽어도 잘 알 수가 없었고 무슨 반 세계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나마 읽기가 쉽고 조금씩이나마 이해가 되는 경전이 바로 <법구경>이었다.

<법구경>의 원래 명칭은 담마파다(Dhammapada)이다. 담마란 ‘인간의 진리’란 뜻이고 파다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전은 팔리어 5부중 소주(小部)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은 전체 423편으로 이루어진 시집이다. 그 주제에 따라서 대구(對句), 불방일(不放逸), 마음, 어리석은 자, 어진 자, 아라한, 악, 폭력, 늙음, 자기(自己) 등

개 그 책을 배웠었다. 아마도 겹표지가 다른 종이로 싸져 있었기 때문이나 소설쯤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책을 돌려 받기 위해서 교무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이 그 책을 읽고 있었다. “너 좋은 책 읽고 있구나. 다 읽은 후에 좀 빌려주겠니” 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바람에 이전 <법구경>을 공식적으로 언제든 읽어도 되는 줄로 여기고 자랑스런 마음으로 항상 들고 다니게 된 기억도 새롭다.

“마음은 모든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일을 부리나니 마음속에 악한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법구경 상서품>의 이 말씀은 지금도 나의 가슴깊이 박혀있는 부처님의 깨어있는 진실된 길(法路) 가운데 한 구절이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사이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 문득 <법구경>을 펴보면 그 속에 이를 해결할 해답이 담겨있다. 이처럼 <법구경>은 나의 길 길을 안내해 준 부처님 말씀이어서 지금도 누구에게나 이 경 읽기를 권한다.

도 화염중, 해동중을 개종하면서 구경회향은 서방극락세계로 돌리고, 서민 대중들도 염불하면 극락정토에 가서 수행한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권고하셨습니다.

화염중 의상대사로 부처사 무량수전을 짓고 법당정면에 무량수불을 모시지 아니하고 서방에 모시어 자연스레 서쪽 아미타불께 예배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보면 신라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종에 원효, 의상 두분의 정토왕생사

세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용기가 약하거나 어느 시간에 전력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와 수행에 우열을 무시할 수 없어 구공으로 등급을 두었습니다. 경성 약한 죄업을 지은 사람이 임명하면서 법사의 말을 듣고 바로 연하여 왕생하게 되면 하품하생에 탁생하는데 죄업이 다 녹아야 연꽃이 열려 관음세지보살에 열불열법열승하여 차차로 마음이 열려서 삼품상생으로 올라 구

“지금 이자리 닦지 않으면 한생 헛된 삶 극락은 가는곳 아니라 수용해야죠”

심은 구경에 가서는 서방극락세계에 가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성불한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그러나 이 해탈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편은 그 사람의 정도, 자기바탕,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업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골격은 다 같지만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이지요.

인간이 천차만별로 다양하지만 고통속에서 해매는 모양은 다 같고, 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사람의 정도나 환경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현실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신란심이 많은 사람은 신란심을 제거하는 방편을 쓰고, 둔탁한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는 방편을 써야 합니다.

경에는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6자염불 왕생과 다라니로 발원한 상품상생원 극락세계는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깨친 사람 입장에서선 사바가 정도요, 정도가 사바요, 삼천대천세계가 정도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보면 상품상생으로 바로 가서 일찍이 성불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단지 열불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다라니 수행공덕으로 가는데 열불공덕보다 다라니 수행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가 점점 약해져서 부처님 말씀을 잘 믿지 아니하고 믿는마음이 적으니 공부도 소홀히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한다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평소

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삼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요,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은 묘한 문이며, 한량없고 그 지없는 공덕이요, 이 한 구절을 생각하여 생각마다 앞에 나타나고 때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며 두사시(無時時)에도 염하고 유사시(有時時)에도 염하며, 살았을 적에도 이렇게 염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하여 한결같은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 갈길을 찾았냐. 이른바 한 구절 아미타불만 다른 생각 없으면 손가락 한 번 뺄 필요도 없이 서방(西方)에 가오리다”

염불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육조대사가 <선정쌍수집요(禪淨雙修集要)>에서 이처럼 답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지 않는 사

2천만의 깨달음을
참아 명로 이끄는 신명의 집합.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방생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한국역학대학
(97년 제2기 신입생 모집)

본대학은 짧은연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존에 많은 부분 해국되었던 동양철학(역학)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올비든 역학인(키운셀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기간 및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 오행역학, 주역

2. 모집방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비고
30명 입학원서 : 1통 97년 9월 20 ~ 10월 30 서류전형 *교육과정 설명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면접

3. 특 전
- 본대학 졸업장 수여 및 본 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역학연구회>의 회원으로 위촉함
- 개업을 원하시는 분께는 적극 지원
- 졸업후에도 <역학연구회>를 통한 지속적 교류는 물론 역학정보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방문 요망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 1동 15-3 해광 B/D 4층
대표전화 (02) 423-6446